

##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 잠재 프로파일: 발달적 영향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김 은 석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송 경 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를 유형화하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과 발달적 요인(부모-자녀 관계, 공동체의식, 학습목표지향성)이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으며,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주관적 만족도, 실질적 적응 수준) 차이를 확인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국교육중단조사 2, 3, 6, 7차년도 데이터(남:1,274명, 여:1,553명)를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는 추구 수준에 따라 생애목표 추구형, 보편형, 생애목표 저발달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생애목표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결과, 부모에 대한 존경, 참여의식, 협력학습, 숙달집근, 수행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생애목표 저발달형보다 보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성취압력, 부모에 대한 존경, 타인배려 수준이 높을수록 보편형보다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보편형보다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 더 높은 수준의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유형은 이후 대학생활 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생애목표 잠재 프로파일, 성차, 부모-자녀 관계, 공동체의식, 학습목표지향성, 대학생활 적응

\* 본 원고는 2018년 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재분석 및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송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포스코관 강의동 255호

E-mail: khsong1028@naver.com

생애목표는 전생애에 걸쳐 성취하려는 장기적 목표로 적응적 삶의 근간이 된다. 생애목표는 많은 경우 가치와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가치는 보다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반면, 목표는 현재 개인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Emmons, 2005). 생애목표는 다양한 삶의 영역(종교, 여가, 자기성장, 물질적 부, 명예, 사회적 공헌, 인간관계, 가정생활 등)에 관한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며(Kasser & Ryan, 1996), 청소년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돕는다(Carver & Scheier, 2001). 그 결과 생애목표가 청소년기 학업 성취, 대학생활 적응, 진로 성숙 등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유순화, 2018; 윤선아, 2016; 전보라, 정혜영, 윤소정, 2016; 정유지, 이은주, 2016).

특히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감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Steinberg, 2017), 미래에 관한 조망이 발달하면서(Nurmi, 2004) 앞으로 가능한 자신의 삶의 모습과 목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는 한국 실정에서 생애목표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 생애목표를 정립하고 또 높은 수준으로 추구한다면, 다양한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성인 진입기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년기 생애목표의 구체적인 양상, 형성 과정 및 중단적 결과를 조망하려는 시도는 미흡하다.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애목표 유

형을 살피고자 시도하였으나 비교적 제한된 생애목표 하위 요소(관계, 성공, 성장, 사회적 기여)를 활용하여 분류하였으며(박은정 등, 2016; 정유지, 이은주, 2016), 유형 분류에 대한 변수들의 횡단적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고영남, 2017; 공계순, 서인혜, 2016; 김성수, 2014; 윤선아, 2016; Eryilmaz,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세분화된 목표(신체건강, 물질적 부, 명예, 사회적 공헌, 인간관계, 가정화목, 종교, 여가)를 고려하여 생애목표 유형을 살피고, 서로 다른 생애목표 유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요인 및 장기적 결과를 중단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애목표 추구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생애목표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생애목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할 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정유지, 이은주, 2018)된 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행할 때에는 삶의 장면이 확장되고 자율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üdrke, Trautwein, & Husemann,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생애목표 확립이 대학 진학 이전에 상당 부분 결정됨을 시사한다. 즉, 고등학교 시기는 전생애 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를 명료화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특히, 한국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3학년 시기는 진로 선택을 통하여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점이므로 생애목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목표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초기 연구들은 생애목표를 비교적 단순한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가

치 기준의 소재에 따라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두 가지로 구분하거나(Kasser & Ryan, 1996), Vansteenkiste 등(2004)은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형을 새로 더하여 총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추구하는 가치 내용에 따라 성취지향 목표와 삶 지향 목표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신종호, 진성조, 2013).

최근에는 목표의 종류가 보다 다양할 수 있고, 또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차원적 프로파일 형태로 생애 목표를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박은정 등, 2016; 정유지, 이은주, 2018; Milyavskaya & Werner, 2018). 한 예로, 국내 고등학생 연구(인효연, 길혜지, 2017)에서 생애목표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 두드러지는 양상은 여러 목표를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고목표형, 중간수준으로 추구하는 중저 목표형, 낮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저목표형이었다. 또한 중 3 및 고 2 대상 생애목표 양상 연구(정유지, 이은주, 2018)에서 생애목표는 4가지 유형(고목표형, 관계지향 평균형, 성공의면 평균형, 저목표형)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중·고등학교 2학년의 생애목표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박은정 등, 2016)에서도 전반적으로 목표 추구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가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생애목표가 뚜렷하게 결정되기보다 미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한 생애목표 하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 생애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보다 삶의 만족도가 크다는 연구 결과

(Keeton, Fenner, & Johnson, 2007)는 생애목표 추구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이 더욱 적응적인 양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생애목표 유형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자기결정성,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 성취 가치(김민성, 조운정, 2017; 정유지, 이은주, 2018)와 같은 개인 특성, 또는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가까운 관계적 맥락(공계순, 서인혜, 2016) 등이 생애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 변수들의 영향력만이 확인되었을 뿐, 생애목표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된 바는 충분치 않다. 또한, 생애목표는 단기간에 형성되기보다 다양한 경험이 누적되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변인들이 생애 목표 형성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생애 인간발달에 대한 인생과정 조망에 따르면, 인간의 개별적 특성 뿐 아니라 인간 발달에 대한 맥락의 효과를 연구할 때 발달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장휘숙, 2008).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맥락 안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자신의 생애목표를 설정하게 되므로(Heckhausen, 1997), 개인 특성이나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관계적,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생애목표 형성은 청소년들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과 사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중학교 시기는 학업 중요성이 증대되며, 동시에 발달적 관점에서 가족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학교 공동체 등으로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학습 목표 지향성은 고등학교 이행 과정에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식에 대하여 자녀가 인식하는 바를 반영한다. 그 동안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 양상은 크게 3가지 핵심(애정 대 거부, 구조 대 혼돈, 자율성 지지 대 강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Skinner, Johnson, & Snyder, 2005). 이는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로 사용한 성취압력, 성취기대, 통제 등의 요인을 일부 반영하나, 존경, 죄송함이라는 하위요인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존경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죄송함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진 토착심리 연구(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변인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생애목표와 함께 다루어진 바가 충분치 않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독특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며, 이 특성의 상당한 측면이 학업 문제와 연결되고, 나아가 성취동기 및 목표와 관련된다는 점(박영신 등, 2003)에 주목한다면, 한국적 의미의 부모-자녀 관계 경험이 청소년의 생애목표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와 생애목표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를 보면, 부모의 과잉기대는 성취지향적 목표를 향상시키는 반면, 감독은 자기주도적 목표와 생애목표 지향 정도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 설명도 생애목표 지향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윤선아, 2016). 한편, 부모의 기대가 자녀

의 생애목표 형성에 영향을 주며(Chang, Chen, Greenberger, Dooley, & Heckhausen, 2006), 부모의 합리적 설명 및 애정, 그리고 감독은 관계 지향 생애목표와 성장지향 생애목표의 발달 수준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였다(한호중, 2015).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내재 목표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욱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성수,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가 자녀의 생애목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 맥락임을 시사한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방향을 제안해 주는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생애목표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양육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청소년에게 제안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가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방식에 영향을 주며, 부모를 존경하게 되기 때문(Rueter & Conger, 1995)이다. 이러한 설명은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갖는 존경이 생애목표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게 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 더 큰 사회체계와의 관계성 역시 개인의 생애목표 형성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 기여 및 자기성장 목표를 예측하였으며(이현주, 채유정, 2014), 지역사회 구성원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들의 삶에서 타인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타적 목표가 증가하였다(김태한, 2017). 뿐만 아니라 생애목표를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중저목표형이나 저목표형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인효연, 길혜지, 2017).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동기를 이끌어내는 특성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의 생애목표 형성에 공동체 의식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공동체 의식이 다양한 하위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함의는 제공해주지 못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측면으로, 내가 이 집단 안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membership in a group),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influence),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needs fulfillment),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공유된 정서(emotional connection)라는 4가지 요소를 포함(McMillan & Chavis, 1986)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크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사회적 현안 등 사회발전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책임 차원과 주변에 대한 걱정과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이타적 차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기에는 배려와 이타성을 반영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가까운 친구, 같은 반 친구, 그리고 보다 넓은 범위의 타인인 낯선 사람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Groep, Zanolie, & Crone, 2019)을 고려할 때, 각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치, 사회뉴스 등에 관심을 갖는 참여 의식, 자신의 가까운 친구를 돕는 협력학습,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마주하게 되는 더 넓은 범주의 타인을 향한 배려를 측정하는 타인배려 등으로 공동체 의식을 세분화 하여 이들이 각각 생애목표 형성 및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피고자 한다.

끝으로 학습 목표 지향성은 청소년이 과제

를 하는 이유 혹은 행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성취 목표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 목표 지향성은 학습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학습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중시하는 숙달목표와 타인보다 우월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는 것을 중시하는 수행목표로 구분된다(Ames, 1992). 각각의 목표는 다시 접근과 회피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Elliot, 1999), 이 중 숙달접근은 수행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게 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게 만든다(Pintrich & De Groot, 1990). 반면, 수행접근의 경우, 도전적인 상황을 회피하고, 암기나 시연 같은 피상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Meece, Blumenfeld, & Hoyle, 1988) 올바른 정답, 평점, 상대적 성공과 사회적 비교, 능력을 강조하는 평가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Ames, 199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업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습 목표 지향성이 생애목표 수립에 영향을 미치며(Lee, McInerney, Liem, & Ortega, 2010) 자기성장 목표 증진에 숙달접근 지향성이 직접 효과를 미쳤다는 연구 결과(김민성, 조윤정, 2017)는 학업 목표 지향성이 생애목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학업 목표 지향성이 단순히 개별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보다 개인의 전반적인 생애목표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양한 발달적 요인들이 청소년 생애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생애목표 유형은 대학교 입학 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는 동기 요인으로 인지적 참여에 영

향을 미쳐 수행에 차이를 가져온다(Covington, 2000). 즉, 추구하는 생애목표가 뚜렷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내적 표상을 선명하게 떠올리고 이를 현실에서 달성하도록 전념함으로써 실제 적응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학업 중심의 고등학교 시기가 끝난 후, 보다 큰 자율성이 담보되는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한 삶의 목표로 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 정립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동기 수준이 높고 생애목표를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집단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지, 이은주, 2016). 그러나 이 연구는 생애목표 분류에 인간관계, 자기성장, 부, 명예 목표만을 사용하여 다소 제한적이었으며, 적응 수준 역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 생활에서 요구되는 바를 잘 수행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활의 의미를 이해하는가를 반영하는 적응 수준 차원과 대학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차원을 구분하여 정서적 차원 및 행동적 차원의 적응을 두루 반영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6차년도) 생애목표를 잠재 프로파일로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2학년(2차년도), 3학년(3차년도) 시기 선행요인(부모-자녀 관계, 공동체 의식, 학습목표 지향성)을 탐색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다. 나아가 유형화된 생애목표가 대학교 1학년 시기(7차년도)의 대학생활 적응(주관적 만족도, 실질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이러한 시도는 개인의 발달적 경험과 요인들을 장기적 관점으로 연결하여 조망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학업 중심 교과에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찾는 방식으로 교육이 확장될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3학년 생애목표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교 3학년 생애목표 유형화에 성별, 그리고 중학교 시기 부모-자녀 관계, 공동체 의식, 학습목표지향성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고등학교 3학년 생애목표 유형은 대학교 1학년의 대학생활 적응(만족도, 적응수준)을 예측하는가?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남녀 학생들의 생애목표 유형을 탐색하고 발달적 영향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 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2005 종단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 연구 2005>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2005년 150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6,908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연구로, 이들이 30세가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 종단자료 중 중학교 2학년(2차년도), 3학년(3차년도), 고등학교 3학년(6차년도), 그리고 대학교 1학년(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 3, 6, 7차 설문에 모두 참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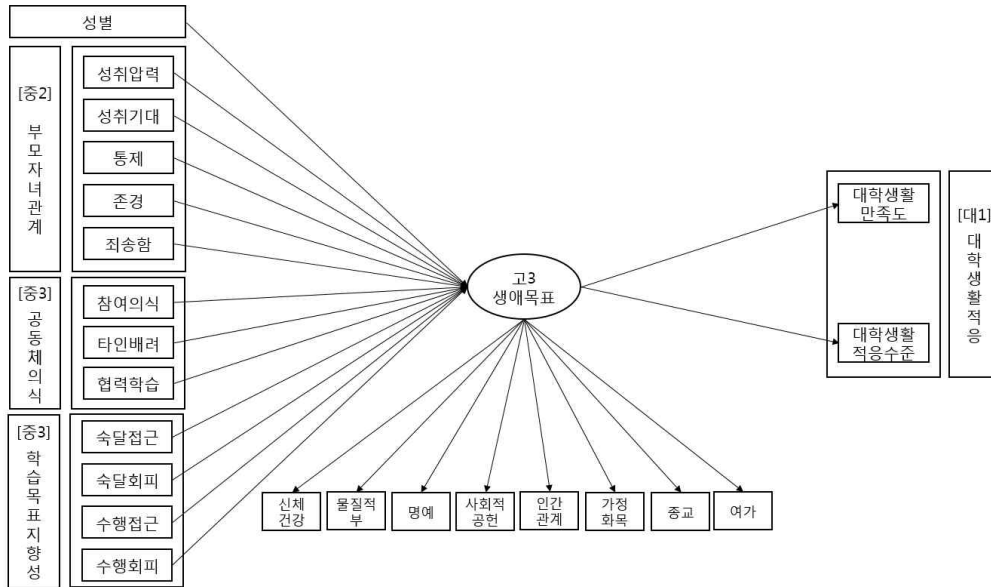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6,908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7차년도에 대학생인 2,830 사례 중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사용된 생애목표 변수에 모두 무응답 한 3 사례를 제외한 2,827명(남: 1,274명, 여: 1,553)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생애목표

생애목표는 한국교육종단 연구팀에서 2010년에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된 자료 중 고등학교 3학년(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생애목표조사지는 각 목표에 부여하는 가치, 목표에 대한 기대, 목표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적 공유 및 지지를 측정하는 총 72문항으로 되어있으며, 하위 요인은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상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하위 척도는 개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주요한 지향점을 신체적 건강(예: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물질적 부(예: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다, 나는 미래를 대비하여 재정 투자 및 관리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명예(예: 나는 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공헌(예: 내가 사회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가정화목(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다), 여가(예: 여가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직업은 아무리 돈

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직업이 아니다, 나는 여  
기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인간관계(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  
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나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 자  
기성장(예: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없는 직업은 매력적이지 않다, 나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간이나 돈을  
과감하게 투자한다), 종교(예: 종교 생활을 함  
으로써 나의 삶이 더 가치 있어 진다고 생각  
한다. 나는 종교적 가르침이 담겨있는 책을  
자주 읽는다)로 구분한다. 생애목표 하위척도  
의 Cronbach's  $\alpha$ 는 .74-.85였다.

####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박영신 등(2003)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교육중단 연구팀에서 개발한 도  
구를 활용하여 측정된 자료 중 중학교 2학년  
시점(2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취압력  
3문항(예: 내가 세운 목표를 완성하도록 격려  
하신다), 성취기대 4문항(예: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를 바라신다), 통제 6문항(예: 내가 어  
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확인하려고 한다),  
존경 5문항(예: 부모님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모범적이다), 죄송함 4문항(예: 자녀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으로 총 22문항, 5점 Likert 척  
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7-.90로 나  
타났다.

####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중학교 3학년(3차년도) 자료  
조사 시 교육중단 연구팀에서 추가한 문항으

로, 참여 의식(예: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뉴  
스가 나오면 관심을 갖고 듣는다), 타인 배려  
(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  
면 자리를 양보한다), 협력 학습(예: 학교 공부  
가 뒤쳐진 친구들을 돕는다)의 3가지 하위요  
인을 포함한다. 하위 요인별 4문항, 총 12문항  
으로 측정되었으며, 학생들은 5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  
다. 본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56-.67로 나타났다.

#### 학습목표 지향성

학습 목표 지향성은 중학교 3학년(3차년도)  
자료 조사 시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문  
항으로 측정되었다. 하위 요인은 숙달접근(예:  
나는 수업에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배우고  
싶다), 숙달회피(예: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 수행접근(예: 나에게서는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  
행회피(예: 나는 종종 수업에서 내가 다른 학  
생들보다 못하는 것을 피하려고 공부한다)로  
되어있다. 본 척도는 하위요인별 각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응  
답하도록 되어있다. 중학교 3학년(3차년도) 자  
료를 사용하였고, 학습목표지향성 하위척도  
의 Cronbach's  $\alpha$ 는 .78-.88이었다.

####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 수준은  
대학교 1학년(7차년도)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  
였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총 9문항으로, '귀하  
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전반적 만족도

(예: 전반적인 대학생활) 및 수업내용과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예: 강좌 및 교육과정 구성), 대인관계 만족도(예: 교우관계)를 포괄한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1:매우 불만족 - 5: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 역시 9문항으로, 이는 대학생활의 의미 있게 지각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바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등(예: 학업 측면에서 교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였다)을 측정하는 것이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생활 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 수준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84와 .68이었다.

#### 자료분석

한국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 추구 양상과 양상의 차이를 야기하는 선행변인, 그리고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대학교 적응을 확인하고자 Mplus 7.0을 사용, 혼합 모형(Mixture Modeling)을 분석하였다. 먼저, EM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사용하여 고3 학생의 생애목표 응답 양상에 따라 적합한 잠재집단 수를 도출하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준으로 정보 지수인 AIC, BIC와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값, k 개 집단 모형과 k-1개 집단 모형을 비교하는 조정된 차이 검증(LMR-LRT), 그리고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LRT)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근거와 잠재집단의 비율 및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였다. 끝으로, 잠재집단 분

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및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결과변수에서 차이를 확인하였다. 공변인 추가 시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분류오류를 고려하는 새로운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 선행변인 효과 검증 시 R3STEP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변인 차이 검증 시 DU3STEP 보조변수를 사용하였다. R3STEP은 모형에 공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프로파일 분류가 변화하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선행변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례가 하나의 프로파일에 비해 다른 프로파일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검증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DU3STEP 역시 결과변인을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프로파일 분류가 변화하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결과변인에서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다.

## 결 과

#### 기술통계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생애목표 변수들은 부모-자녀 관계, 공동체 의식, 학습목표지향성,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대체로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의 경우 부모에 대한 존경, 참여의식, 타인배려, 협력학습,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수준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신체적건강	1																							
2. 물질적 부	.22***	1																						
3. 명예	.39***	.45***	1																					
4. 사회적공헌	.35***	.17***	.47***	1																				
5. 인간관계	.46***	.28***	.51***	.38***	1																			
6. 가정화목	.41***	.21***	.39***	.39***	.46***	1																		
7. 자기성장	.40***	.22***	.52***	.48***	.42***	.41***	1																	
8. 종교	.14***	.03	.11***	.32***	.10***	.17***	.16***	1																
9. 여가	.29***	.21***	.28***	.22***	.36***	.27***	.28***	.04	1															
10. 성취압력	.15***	.12	.19***	.11***	.22***	.20***	.18***	.02	.12***	1														
11. 성취기대	.05*	.12***	.16***	.07***	.17***	.13***	.13***	-.01	.09***	.76***	1													
12. 통제	.15***	.07***	.11***	.08***	.15***	.10***	.11***	.02	.10***	.42***	.25***	1												
13. 혼경	.22***	.09***	.20***	.19***	.24***	.30***	.21***	.10***	.10***	.56***	.39***	.43***	1											
14. 죄송함	.08**	.02	.11***	.11***	.15***	.20***	.15***	.01	.01	.38***	.38***	.15***	.43***	1										
15. 참여의식	.21**	.13***	.24***	.24***	.20***	.19***	.27***	.11***	.10***	.21***	.19***	.09***	.20***	.18***	1									
16. 타인배려	.19**	.04*	.21***	.24***	.21***	.17***	.23***	.09***	.10***	.18***	.15***	.08***	.20***	.17***	.53***	1								
17. 협력함수	.16**	.07**	.20***	.22***	.23***	.17***	.20***	.11***	.10***	.17***	.11***	.07***	.17***	.11***	.42***	.45***	1							
18. 숙달집근	.13**	.12***	.22***	.14***	.14***	.14***	.21***	.02	.05***	.19***	.16***	-.00	.16***	.14***	.34***	.27***	.25***	1						
19. 숙달회피	.07**	.06**	.15***	.12***	.12***	.08***	.13***	.01	.07***	.10***	.07***	.07***	.11***	.12***	.20***	.15***	.14***	.43***	1					
20. 수행집근	.07**	.18***	.22***	.08***	.15***	.10***	.12***	-.02	.04*	.20***	.22***	.09***	.15***	.15***	.21***	.15***	.14***	.45***	.39***	1				
21. 수행회피	.03	.08***	.14***	.06***	.09***	.06***	.08***	.02	.05**	.08***	.08***	.09***	.05**	.07**	.12***	.05**	.09***	.22***	.42***	.52***	1			
22. 만족도	.18**	.00	.12***	.15***	.16***	.15***	.09***	.06**	.07***	.04	.07**	.12***	.03	.09***	.10***	.09***	.10***	.09***	.01	-.05*	-.02	-.03	1	
23. 적응수준	.21**	-.00	.16***	.20***	.19***	.17***	.21***	.11***	.07***	.06**	.01	.06**	.14***	.04*	.12***	.13***	.11***	.05**	-.01	-.04	-.04	.56***	1	
평균	3.54	3.31	3.66	3.21	3.75	3.64	3.67	2.69	3.44	3.90	4.23	3.15	3.52	3.90	3.46	3.58	3.27	2.91	2.54	2.82	2.42	3.40	3.06	
표준편차	.51	.53	.54	.54	.52	.56	.52	.66	.51	.72	.64	.82	.67	.78	.67	.56	.67	.56	.67	.63	.67	.63	.57	.65

\* $p < .05$ , \*\* $p < .01$ , \*\*\* $p < .001$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생애목표에 따른 잠재 집단 분류: 잠재 프로파일 모형 선정

생애목표에 따라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지 다양한 통계적 기준을 고려하여 탐색하였다(표 2). 잠재 프로파일 수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할수록 AIC와 BIC가 점차 감소하였고 분류의 질은 상승하였으며, LMR-LRT와 BLRT 모형 비교 결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잠재 프로파일 수가 3개에서 4개로 변화할 때에 비해 2개에서 3개로 변화할 때 AIC와 BIC가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4개 프로파일로 분류 시 잠재프로파일 분류율이 0.1%인 집단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표성을 가진 집단 구분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상의 다양한 통계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생애목표 프로파일 형태와 명명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생애목표 추구 양상에 따라 도출한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를 각 프로파일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표 3, 그림 2). 첫 번째 유형은 종교를 제외한 8가지 생애목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을 생애목표 추구형(pursuing life-goals)이라고 명명하였다.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나머지 생애목표를 높은 수준으로 추구한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종교의 경우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보통 수준으로 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특히 명예, 인간관계, 가정화목, 자기성장을 중시하였으며, 물질적 부, 사회적 공헌, 종교, 여가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하는 학생은 약 14.6%였다.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생애목표를 중간 정도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편형(intermediate)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은 약 57.5%로 보편형이 전체 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유형은 다른 두 유형에 속한 또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생애목표를 보이고 있어 생애목표 저발달형(low development)으로 명명하였다. 이 프로파일에 속하는 학생들은 종교를 제외한 8가지 생애목표를 보통 수준으로 추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각 생애목표 간 추구 수준 차이가 생애목표 추구형이나 보편형에 비해 다소 완만한 양상

표 2. 잠재프로파일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프로파일	적합도 지수		분류의 질 Entropy	모형 비교		잠재프로파일 분류율(%)			
	AIC	BIC		LMR-LRT	BLRT	1	2	3	4
1	41257.15	41364.19				100			
2	37476.67	37643.18	.75	.0000	.0000	61.3	38.7		
3	35805.41	36031.39	.79	.0000	.0000	27.9	57.5	14.6	
4	35645.64	35931.09	.83	.0001	.0000	28.7	56.9	0.1	14.4

표 3. 잠재 프로파일별 생애목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오차

목표	유형1:생애목표 추구형		유형2:보편형		유형3:생애목표 저발달형	
	M	SE	M	SE	M	SE
신체적건강	4.09	.03	3.58	.02	3.16	.02
물질적부	3.72	.04	3.31	.02	3.08	.02
명예	4.34	.04	3.72	.02	3.18	.03
사회적공헌	3.78	.04	3.26	.02	2.81	.03
인간관계	4.39	.03	3.80	.02	3.31	.03
가정화목	4.23	.04	3.71	.02	3.20	.03
자기성장	4.30	.03	3.72	.02	3.25	.02
종교	2.88	.05	2.74	.02	2.48	.03
여가	3.89	.04	3.44	.02	3.22	.02

을 보였다. 전체 학생 중 약 27.9%가 생애목표 저발달형에 속하였다.

#### 잠재집단 분류의 영향요인

고 3 시기 생애목표 유형에 차이를 야기하는 발달적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 최종 모형인 세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에 공변인으로 독립변수를 추가한 조건모형을 검증

하였다(표 4).

먼저, 생애목표가 가장 낮은 수준인 생애목표 저발달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포함된 보편형에 속하는데 부모에 대한 존경,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식과 협력학습, 숙달접근 및 수행회피의 학습목표 지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를 존경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거나 협력학습을 할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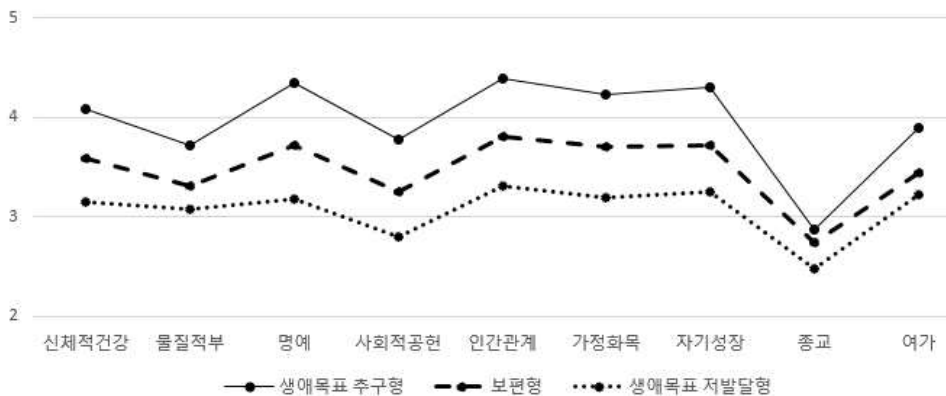


그림 2. 잠재 프로파일 형태

표 4. 생애목표 잠재 프로파일의 영향 요인 검증 결과

영역	변수	준거집단: 생애목표 저발달형			준거집단: 보편형		
		비교집단: 보편형			비교집단: 생애목표 추구형		
		계수	표준오차	우도비	계수	표준오차	우도비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04	.13	0.96	.73***	.16	2.08
부모-자녀 관계	성취압력	-.07	.12	0.93	.58**	.19	1.79
	성취기대	.02	.13	1.02	-.24	.21	0.79
	통제	.14	.09	1.15	.06	.11	1.06
	존경	.68***	.13	1.97	.45**	.14	1.57
	죄송함	.08	.09	1.08	.05	.12	1.05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63***	.12	1.88	.20	.15	1.22
	타인배려	.24	.14	1.27	.48**	.17	1.62
	협력학습	.50***	.11	1.65	.10	.14	1.11
학습목표 지향성	숙달접근	.30*	.14	1.35	.15	.18	1.20
	숙달회피	-.08	.11	0.92	.21	.12	1.13
	수행접근	.00	.13	1	.28	.14	1.15
	수행회피	.32**	.12	1.38	-.07	.12	1.13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리고 숙달접근이나 수행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생애목표 저발달형에 비해 보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편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생애목표 수준이 가장 높은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하는 데 성별,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에 대한 존경, 타인배려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보편형보다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승산이 2배 가까이 더 컸으며, 부모의 성취압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부모를 존경할수록, 타인배려의 공동체의식을 가질수록 보편형에 비해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잠재집단들의 최종 결과변수(distal outcome)로 대학생활 주관적 만족도와 실질적 적응 수준을 투입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보았다(표 5). 그 결과, 주관적 만족도( $\chi^2(2)=89.17, p < .001$ )와 실질적 적응( $\chi^2(2)=136.61, p < .001$ ) 모두 하위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만족도와 실질적 적응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또래집단보다 뚜렷한 생애목표를 추구하였던 생애목표 추구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편형, 생애목표 저발달형 순서로 나타났다.

표 5.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검증 결과 (n=2,827)

변수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수준	
	M	SD	M	SD
생애목표 추구형	3.50	.04	3.27	.03
보편형	3.33	.02	3.08	.01
생애목표 저발달형	3.13	.02	2.90	.02
$\chi^2$	89.17***		136.61***	
Post Hoc	1>2>3		1>2>3	

주. 1: 생애목표 추구형, 2: 보편형, 3: 생애목표 저발달형;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결정적 시기로 언급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 추구 양상을 살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애목표 추구 양상에 따라 대학교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 유형은 생애목표 추구형, 보편형, 생애목표 저발달형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편형(57.5%)으로,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체 평균에 가까웠다. 유형의 분류는 생애목표 추구 수준의 전반적 차이에 기반 하였으며, 각 유형 내에서는 종교를 제외한 8가지 생애목표를 비교적 고르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대한 추구 수준은 유형과 관계없이 보통 또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영성의 발달이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관계적 인식의 발달에 기반 한다는 점(Cervantes & Arczynski, 2015)을 고

려할 때 인지적 및 관계적 조망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청소년기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생애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앞서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생애목표 유형이 추구 수준에 따라 분류되었던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정유지, 이은주, 2018). 생애목표의 다양한 하위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진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한 시기에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가 반드시 반대 관계가 아님을 드러낸다(신종호, 서은진, 이윤경, 2011; Kasser & Ryan, 2001; Rijavec, Brdar, & Miljkovic, 2011). 나아가, 개인적 경험을 통해 고유한 생애목표를 선별하여 정교화 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생애목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한 생애목표 추구형의 경우 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종교, 물질적 부, 사회적 공헌보다 나머지 생애목표에 더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생애목표 저발달형에서 물질적 부의 추구 수준이 다른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정도와 유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외적 보상에 집중하게 되고 내적 보상에 대한 선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데(Iardi, Leone, Kasser, & Ryan, 1993), 생애목표 추구형의 경우 물질적 소유나 획득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내적 가치들을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공헌, 인간관계, 가정화목의 세 가지 생애목표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측면의 목표에 해당하며, 이 중 사회적 공헌은 보다 자기 초월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목표와 차이가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즉, 인간관계나 가정화목에 비해 사회적 공헌을 더 낮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려는 이타적 목표의 추구보다는 주변 사람 또는 가족 구성원처럼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 맥락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일찍이 Selman(1980)은 관계적 조망이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2차 혹은 3차 관계를 거쳐 보다 넓은 사회적 조망을 획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조망을 점차 확장하여 집단 전체의 이익에 대해 고려하는 능력이 발달해가는 과정 안에 있기에 다른 관계 영역에 비해 사회적 공헌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아’의 의미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로 확장되어 이들을 외집단과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며 내집단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김연신, 최한나, 2009)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생애목표 저발달형의 경우 비록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생애목표의 중요성과 실천 정도를 보통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즉, 또래집단과의 상대적인 발달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절대적 발달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조차 생애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생애목표 프로파일 분류 시 성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남학생은 보편형에 비해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승산이 여학생의 2배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생애목표를 추구하는데 여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 연구와 달리 공계순과 서인혜(2016)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성취 목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자기성장 목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목표 추구 내용에서의 차이 이외에 전반적인 생애목표 지향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생애목표 추구 수준의 성차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생애목표 구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여학생들이 생애목표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생애목표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확인한 결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 이 시기 생애목표 발달의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은 생애목표 저발달

형에 비해 보편형에 속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보편형에 비해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은 사고방식과 행동이 모범적이거나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등 긍정적인 역할모델로서 기능하는 부모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되는 역할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녀가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을 통해 중요한 가치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안내와 경계 설정을 통한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존중을 하도록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적응적 발달을 도모한다(Rueter & Conger, 1995)는 주장과 맥을 나란히 한다. 이는 애정적이고 구조화되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생애목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은 선행연구(김성수, 2014; 김우리, 김정섭, 2016; 윤선아, 2016; 한호중, 2015)를 넘어서 한국적 의미의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은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의 증진, 학업성취 향상,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수행의 향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고성희, 임성택, 2010; 김정실, 박영신, 2018),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 측면에서의 동기 증진에도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모의 성취압력은 생애목표 저발달형에 비해 보편형에 속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보편형에 비해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성취압력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생애목표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양육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부모의 감독이 생애목표 지향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관된다(윤선아, 2016). 서구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헌들이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유리함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이상적 부모상은 자녀에 대한 관여를 강조하며, 이러한 양육 태도가 한국 사회에서는 보다 적응적일 수 있다(고성희, 임성택, 2010; 박영신 등, 2003). 이 같은 부모의 영향력은 고등학교 시기의 생애진로분기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손민정, 조인수, 최정은, 2018).

이와 달리, 부모의 성취기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성취압력 문항은 자녀의 학습이나 목표 달성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정도로 측정된 반면, 성취기대 문항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같이 높은 수준의 성취 결과를 갖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성취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자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 시기 자녀들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공동체 의식의 하위 요인 중 참여의식과 협력학습이 생애목표 저발달형에 비해 보편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타인배려는 보편형에 비해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애목표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한층 더 높은 수

준의 생애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개입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Noddings(2002)는 도덕 교육이 정의 중심의 윤리에서 관계적 윤리, 즉 배려 윤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교가 배려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최용성(2003)은 교육 과정에서 배려의 도덕 교육을 교실공동체를 넘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 시킬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의 이러한 도덕 교육이 전인적인 인간의 양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다섯째,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달접근 지향성과 수행회피 지향성은 생애목표 저발달형에 비해 보편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보편형에 비해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목표지향성이 생애목표의 선행요인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Lee et al., 2010).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유능함을 개발하고 과제를 숙달하려는 목표가 뚜렷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인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생애목표를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되나, 이러한 학습목표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생애목표를 개발하는 것에는 기여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앞서 김민성과 조운정(2017)의 연구에서도 숙달접근 지향성이 자기성장 및 명예에 대한 목표를 더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도록 하는 변인임이 밝혀진 바 있으나, 숙달접근 지향성이 단지 이러한 두 가지 생애목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애목표의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또래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기초적인 생애목표를 발달시키는 과정에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수행회피 지향성이 외적 조절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성장 목표를 낮추며 명예 추구에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김민성, 조운정, 2017)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생애목표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변수들 간의 상관을 보는 변인 중심적 연구 방식과 개인의 전반적인 생애목표 추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사례 중심적 연구 방식 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행회피가 생애목표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수행회피 지향성이 다양한 생애목표 목표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기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어떠한 생애목표 유형을 형성하였는지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생애목표의 추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와 관계없이 삶의 만족 및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고영남, 2017; 정유지, 이은주, 2016)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관련성을 횡단적으로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는 종단적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생애목표가 이후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대학생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인관계(박은희, 최은실, 2015)나 자존감(정영숙, 김수빈, 2014) 등의 다소 제한된 주제를 다루어 온 것에서 나아가 관점을 확장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애목표는 인지적 표상일 뿐만 아니라 가치를 행동을 통해 실천하게 하는 핵심 동인이라는 점(한국교육개발원, 2010)을 고려할 때,

생애진로전환기의 생애목표가 진로 선택 이후의 적응을 위한 기반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부터는 고등학교 시기 주어진 교육 과정을 단순히 이수해왔던 것과 달리 능동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적응 및 진로 발달에 더욱 중요해진다(강명숙, 방은령, 2014; 정은이, 2016). 따라서 청소년기를 거치며 자기정체감 및 장기적 생애목표를 형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시기 이러한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학업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집중된 경향이 있어 학령기에 생애목표 발달을 위해 다양한 경험에 노출 시키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생애목표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교육적, 치료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의 생애목표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는 제한된 표본 집단 내에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와 같이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보다 폭넓은 대상으로 생애목표 추구 양상에 기여하는 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 안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공동체 의식과 같은 사

회적 특성과 함께 학습목표 지향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함께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목표 추구 기회 및 자원과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또래 관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생애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변인들(공계순, 서인혜, 2016)의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생애목표 프로파일에 대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한다면 청소년의 생애목표 발달의 촉진을 위한 개입 영역을 보다 확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적응 수준은 생애목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생애목표 유형이 갖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시기에 형성한 생애목표가 이후 적응에 주는 영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 신입생 시기에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지에 주목하였으나, 더 나아가 학사경고 여부와 같이 학업중단 위기나 학점과 같은 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다 폭넓은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사경고자의 특성에 대한 문헌 연구(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2017)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학업목표 및 동기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요인 및 과정으로 학업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학령기에 형성한 생애목표가 이와 같은 학업적 위기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추후 연구에서 검증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숙, 방은령 (2014).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443-467.
- 고성희, 임성택 (2010).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1), 45-64.
- 고영남 (2017).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삶의 만족의 관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3(4), 161-182.
- 공계순, 서인혜 (2016).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관련 요인 및 생애목표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연구*, 5(2), 1-26.
- 김민성, 조윤정 (2017).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목표와 생애목표와의 종단적 관계: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393-420.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수 (2014).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3), 29-52.
-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 김우리, 김정섭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671-690.
- 김정실, 박영신 (2018).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5-155.
- 김태한 (2017).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 *교육사회학 연구*, 27(1), 31-53.
- 박영신, 김의철, 한기에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127-164.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남녀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차이. *교육종합연구*, 14(3), 1-27.
- 박은희, 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 (1), 57-79.
- 손민정, 조인수, 최정은 (2018). 생애진로분기점별 진로정체성 혼돈에 따른 진로전략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6), 299-323.
- 신중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 276.
- 신중호, 진성조 (2013). 생애목표유형이 학업적 자기개념, 학업노력,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취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교육심리연구*, 27(1), 161-180.
- 유순화 (2018). 여대생의 생애목표와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 *여성학연구*, 28(2), 283-310.
- 윤선아 (2016).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부모 양육태도, 정서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909-932.

- 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2017).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과 교육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탐색. *교육방법연구*, 29(1), 161-184.
- 이현주, 채유정 (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인효연, 길혜지 (2017).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유형에 따른 진로 정체감, 공동체 의식 및 삶의 만족도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25-49.
- 장휘숙 (2008). 인생과정 조망과 성인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99-113.
- 전보라, 정혜영, 윤소정 (2016). 전문대학생의 생애목표와 성취목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6), 313-334.
- 정영숙, 김수빈 (2014). 대학신입생의 자기 존중감, 자기자비와 대처전략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117-138.
- 정유지, 이은주 (2016). 대학생의 자기결정 동기유형과 생애목표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과학연구*, 47(4), 187-208.
- 정유지, 이은주 (2018). 청소년기 생애목표 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2(1), 79-98.
- 정은이 (2016). 대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대학 적응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도 및 진로역량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4), 651-679.
- 최용성 (2003). 도덕교육에 있어서 정의와 배려의 공동체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학교육*, 42, 163-193.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 (VI)*. 서울: 범신사.
- 한호중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s, C. (1992). Classroom: Goals, structure,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271.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Carver, C. S., & Scheier, M. F. (2001). *On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rvantes, J. M., & Arczynski, A. V. (2015). Children's spirituality: Conceptual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2(4), 245-255.
- Chang, E. S., Chen, C., Greenberger, E., Dooley, D., & Heckhausen, J. (2006). What do they want in life?: The life goals of a multi-ethnic, multi-generational sample of high school sen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302-313.
- Covington, M. V. (2000). Goal theory, motivation, and school achievement: An integrative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171-200.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169-189.
- Emmons, R. A. (2005). Striving for the sacred: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religion.

-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731-745.
- Eryilmaz, A. (2011). Satisfaction of needs and determining life goals: A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for adolescents in high school.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1(4), 1757-1764.
- Groep, S., Zanolie, K., & Crone, E. A. (2019). Giving to friends, classmates, and strangers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 doi: 10.1111/jora.12491
- Heckhausen, J. (1997). Developmental regulation across adulthood: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of age-related challe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76-187.
- Ilardi, B. C., Leone, D., Kasser, T., & Ryan, R. M. (1993). Employee and supervisor ratings of motivation: Main effects and discrepancie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adjustment in a factory sett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21), 1789-1805.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 116-131). Seattle, WA: Hogrefe & Huber Publishers.
- Keeton, K., Fenner, D. E., Johnson, T. R., & Hayward, R. A. (2007). Predictors of physician career satisfaction, work-life balance, and burnout. *Obstetrics and Gynecology*, 109(4), 949-955.
- Lee, J. Q., McInerney, D. M., Liem, G. A. D., & Ortega, Y. P.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goal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 intrinsic - extrinsic motivation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4), 264-279.
- Lüdrke, O., Trautwein, U., & Husemann, N. (2009). Goal and personality trait development in a transitional period: Assessing change and stability in personality development.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4), 428-441.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eece, J. L., Blumenfeld, P. C., & Hoyle, R. H. (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4), 514-523.
- Milyavskaya, M., & Werner, K. (2018). Goal pursuit: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anadian Psychology*, 59(2), 163-175.
- Noddings, N. (2002). *배려교육론* (추병완, 박병준, 황인표 역). 서울: 다른우리. (원서출판 1992).
- Nurmi, J. (2004). Socialization and self development: Channeling, Selection, adjustment, and reflection. In R. Lea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Rijaveć, M., Brdar, I., & Miljković, D. (2011). Aspirations and well-being: Extrinsic vs. intrinsic life goals. *Drustvena Istrazivanja*, 20(3), 693-710.
- Rueter, M. A., & Conger, R. D. (1995). Interaction style, problem-solving behavior, and family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Child Development*, 66(1), 98-115.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teinberg, L. (2017). *Adolescence* (11th ed., pp.247). New York: McGraw-Hill.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oenens, B., Matos, L., & Lacante, M. (2004). Less is sometimes more: Goal contents matt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4), 755-764.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1차원고접수 : 2019.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9. 05. 19.  
최종게재결정 : 2019. 05. 30.

## Latent Profiles of Life-goal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Developmental Factors and Adjustment in University

**Eunse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Keng-hie,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lassify life goals among South Korean 12th graders. Moreover, the roles of gender and developmental factors (parent-child relationships, a sense of community,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that contribute to life goal profiles were studied. Finally, adjustment at university according to life goal profiles was investigated.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data was analyze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There were 2,828 participants (males: 1,275) who completed the second, third, sixth, and seventh survey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ife goals of the 12th grad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ursuing life goals, intermediate, and low development. In addition, when students reported a high level of respect for parents, responsibility to participate in society, cooperative learning, the mastery approach, and performance avoidance, they were more likely to fall into the intermediate life goals profiles than the low development profiles. Moreover, a high level of achievement pressure, respect for parents, and concern for others contributed to increasing possibilities that students belong to the pursuing life goals profiles. In addition, compared to boys, girls tended to be more likely to be affiliated with pursuing life goals profiles than intermediate life goals profiles. Finally, pursuing a high level of diverse life goals in the 12th grade increased adjustment success at universit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Life-goals, gender, Parent-child relationship, Sense of community, Learning goal orientation, University adjustment, Latent Profile Analysis